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사랑의 김치' 전달

지역별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직접방문

본지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은 지난 1일과2일 이틀 동안 가산면 금현1리 주부명예기자단 이은미 총무 자택에서 '사랑의 김치' 650포기를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사랑을 나누었다.

연인원 60여명의 주부명예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사랑의 김치' 전달은 이은미 총무가 배추 650포기를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고마운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에서는 꽃다발을 마련해 이은미 총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또 '사랑의 김치' 전달에 나선 주부명예기자들은 안타까운 이웃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고 봉사하는 마음에 뿌듯한 마음을 갖기도 했다. 이 고마운 일을 격려하기 위해 김장담는 장소까지 찾아 준 여러분들의 마음도 고맙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사회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봉사의 손길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이같은 모두의 정성을 지면에 담아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그 뜻을 서로가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사랑의 김치' 김장을 위해 배추밭으로 가기전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본지 주부명예기자단과 좋은 일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하신 내빈 여러분들의 모습.(가산면 금현1리)



'사랑의 김치' 전달운동의 초석을 만들어 준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이은미 총무가 배추를 가득 실은 차량 앞에서 한 컷.



'사랑의 김치'를 위해 650포기의 배추를 수확하고 난 후 가산면 금현1리 배추밭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장하는데 힘이 들지 않도록 가산농협 전 조합장이신 류재웅 총무께서 좋은 글씨를 가져와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선물로 주시기도 했다.



'사랑의 김치'를 기탁해 주시고 김장장소를 제공해준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부 박형민·윤미숙 기자가 이은미 총무와 남편인 김정식 영천목장 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김장을 다 담고 나서 본지 최두열 전무이사가 최호열 본지 발행인을 대신하여 '사랑의 김치'를 마련하는데 수고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3일 소흘읍 이곡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나눔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김치' 2박스와 과자 5박스를 전달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생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3일 내촌면 진목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나눔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김치' 2박스를 전달하고 용기를 잃지 말고 생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지난 3일 신북면에 소재한 해뜨는집을 방문해 '사랑의 김치' 2박스를 전달했다.



지난3일 소흘읍 주공4단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노인 10분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치' 1박스와 10박스를 주공4단지 고문마을 부녀회(회장 박영숙)에 전달했다.



지난3일 소흘읍 송우리에 거주하는 신혜란 장애부부에게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3일 소흘읍 송우리 일신빌라에 거주하는 홍중석 할머니에게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했다.(할머니가 대신 수령했는데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누워서 생활하신다)



지난3일 소흘읍 송우리 일신빌라에 거주하는 홍중석 할머니에게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했다.(할머니가 대신 수령했는데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누워서 생활하신다)



지난2일 신음동 박창호 할머니께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2일 신음동 신정희 할머니께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했다.



지난2일 신음동 한승우 할머니에게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했다.



지난2일 신음동 박영자 할머니께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했다.



지난2일 신음동 이간남 할머니께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했다.



지난2일 신음동 박창호 할머니에게 '사랑의 김치' 1박스를 전달했다.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④

어룡1통 통장 오병화

산업화속 잘 보존된 무공해마을

물고기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을 간직한 포천시 어룡1통은 남으로는 자작동과 북으로는 신음동이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43호선 변에 위치한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을 소재하고 있는 마을이다.

또 이 마을은 왕방산을 뒤로 위치하고 있으며, 예부터 보성오 씨의 집성촌으로 효가 유명했던 곳이다. 현재도 오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주민의 태반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농촌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머니들의 역적같은 함학열로 포천에서도 공무원이 가장 많이 배출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함학열의 배경에는 과거 채소농사로 자식을 공부시켰던 부모들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어룡1통은 포천동 전체에서 인구나 세대가 가장 작은 3개반 100여 세대 4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50여 가구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사짓는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있어 대규모 농업보다는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룡1통에서 태어나 1969년에 공무원에 입문 2000년도에 정년 퇴직을 한 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01년부터 통장을 맡게된 오병화(63) 이장으로부터 마을의 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이 마을은 1967년도에 농촌진흥기사업으로 포천에서도 가장 일찍 전기가 들어온 마을이나, 현재까지 공장이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 이장은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으로 재임하고 있던 오치성 씨가 마을 발전을 위해 전기를 가설해 주었다"며 "현재는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생산시설 및 공장시설이 한 곳도 입주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와 무관할지는 모르나 다행히 마을이 주변지역에 비해 오염이 덜되고 공기가 맑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이장은 "주민 대부분은 논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토는 외지인의 소유가 많아 향후 마을의 존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천혜의 조건을 가진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그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오병화 통장 어룡1통

어룡1통은 오병화 이장을 중심으로 정만근 새마을지도자, 왕영순 부녀회장, 오완식 노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개발위원이 합심해 마을 사업 등 각종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어룡1통은 올해 정부지원 자금 9천6백만원의 지원으로 노인정 겸 마을회관을 신축했으며, 지난 8월 16일 박윤국 포천시 시장 및 관내기관장, 지역 유지 등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준공식 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오 이장은 "경로당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을 활용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선 농촌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에 보급된 컴퓨터 활용을 위해 컴퓨터 교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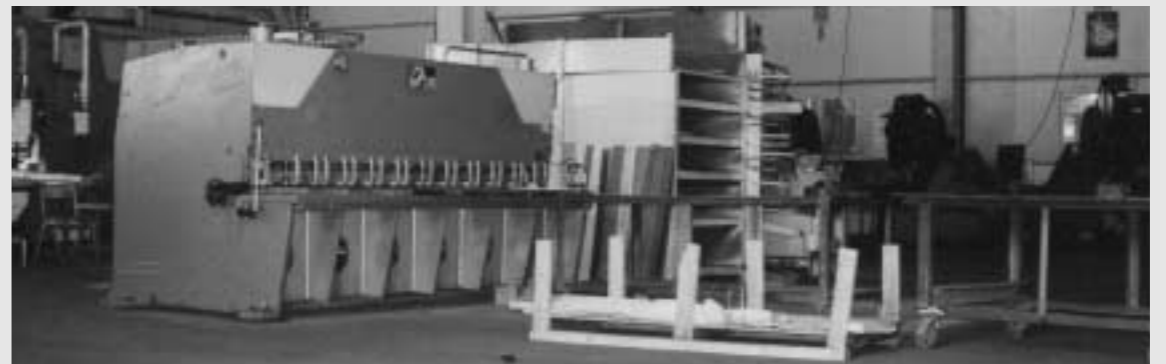
이어 "컴퓨터 교실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차별화시킬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이장은 최근 점점 사라지고 있는 마을주민간 화합이 가장 안타까워했다.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주요사안은 노인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일례로 마을 청소시 노인들은 주로 청소하는 입장이고 젊은이들은 주로 버리는 입장"이라며 개탄했다.

오 이장은 앞으로 노령화 인구의 정보화사업을 지속해 노인이라도 모두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게 하고, 외지인과의 꾸준한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생성하고 나아가서는 마을발전의 초석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